



2면

전북 문화도시 상생 협력 네트워크 출범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음 10월 20일) 제362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9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현대자동차(주) 수소산업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협약 체결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2025 수능 가채점 분석 결과

## “국·수·영 체감 난도 낮고 탐구영역에서 어려움 겪어”

전북자치도교육청, 영역별 난이도 분석 지원 전략 안내  
수시 대학별 고사 등 응시... 내달 정시 입시설명회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9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가채점 분석 결과 및 정시 전략 등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 역대 정원 확대, 무전공학과 신설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만큼 본인의 성적이 다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후 정확한 성적이 발표되면 예상보다 높은 표준점수나 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수시 대학별 고사 등에 적극 응시할 것과, 수시 모집인원 이월 등으로 인해 정시 모집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시에서는 국어·수학 영역이 지난해 대비 평이한 수준으로 표준점수 만점이 낮아지고, 탐구 영역의 체감 난도는 다소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표준점수는 원점수 평균을 100(탐구는 50)으로 설정했을 때 자신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점수 만점 점수가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원점수 만점자가 얻은 국어 표준점수가 150점, 수학 표준점수가 148점이었었다.

올해는 국어영역이 130점대 중후반, 수학 영역은 140점대 초반으로 예측되면서 원점수 기준 1등급 컷 점수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지난해 수능에서 비교적 어려웠던 영어 영역은 다소 쉬웠다는

평이다. 올해 각 대학이 수능 필수 응시과목 제한을 풀면서 탐구 영역에서는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영역을 응시하는 ‘사탐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탐구 과목에서 난도가 높게 출제돼 사탐과 과탐 간 표준점수 유효율보다 과목 간 격차에 따른 유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험생이 많이 선택한 ‘생활과 윤리’의 표준점수 만점은 지난해보다 10점 이상 높아진 77점으로 예측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부터 참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2025 대입 정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월 16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을 위한 대면·화상 진학 상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본청에서는 다음달 16~23일 평일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에서는 다음달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운영된다.

대면상담 예약은 전북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http://www.jte.go.kr/jintro) 등에서 가능하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2025학년도 대입을 위해 애써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수험생들을 돕겠다”면서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수험생들은 차분하게 남은 대입정형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글로벌 수소 리더와 수소산업 혁신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수소 리더 기업인 현대자동차(주)와 함께 수소산업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에 나선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9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김동욱 부사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 혁신을 목표로 한 5대 협력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쌓아온 수소산업 기반과 현대자동차의 혁신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시장 확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협력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수전해 기술 실증 △암모니아 크래커 테스트베드 구축 △노내 수소지게차 및 수소특장차 보급 △연료전지 발전기 보

### 전북자치도, 현대자동차와 협약 체결

청사 내 수소충전소, 수전해 기술 실증 등 5개사업 협력

김관영 도지사 “수소산업 중심지 도약에 중요한 발판”

장재훈 사장 “전북자치도와 함께 수소 생태계 조성 노력”

급 등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 내 수소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예산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추진될 수전해 기술 실증 사업은 해당 지역을 수전해 실증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2019년 전북 1

호 △원주 수소충전소 착공을 시작으로 △수소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 인증센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등 10여개의 수소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 클러스터 에타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기업·기관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집적화 단지를 준비 중에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수소기술 개발과 솔루션을 통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장재훈 사장은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을 추진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소가 전북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대차의 수소 기술력과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활용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현대자동차(주)는 수소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과 기업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해 수소경제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방위대 창설 49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그리고 도내 각 시·군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 1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방위대의 역사와 그

## 재난 속 안전과수꾼... 민방위대 창설 49주년 기념행사

도청 대회의실에서... 유공자 표창·민방위대장 교육 등 진행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위해 헌신해 온 민방위대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75년 ‘내 마을, 내 직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설된 민방위대는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민방위대는 각종 사고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동원되어 재난 수습과 복구에 앞장섰으며,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안보를 넘어 국민 생활 속에서 민방위의 중요성과 역할을

증명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민방위 유공자 표창, 민방위 신조 낭독, 민방위의 노래 제창, 그리고 부대행사인 민방위대장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과 개인에게 김관영 도지사와 이호준 106여단장이 직접 시상상에 나서 이들의 공로에 감사를

전했다.

올해 도지사 표창은 기관 부문에서 고창군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임실군 운암면 민방위대장 강성운씨 등 4명이 수상했다. 또한, 제35보병사단장 표창은 부안군 계화면 참북리 민방위대장 황의철씨 등 총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만호 기자

